노인의 '소수자-되기'를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

: 노인 미디어교육 학습자와의 FGI를 중심으로

임미영(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배민영(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 문제제기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눈다. 두 사람은 70대이다. 젊은이들의 눈에는 영락없는 노인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에선 “좋아 죽겠네”, “이뻐 죽겠네”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 노부부의 마음속에는 남김이 없다(송형국, 2002.12.5). 앞의 글은 노인의 사랑과 성을 실제주인공이 연기하여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죽어도 좋아>를 소개한 기사내용이다. 이 영화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노인들의 사랑이나 성에 대한 공론화를 금기해 왔음의 반증일 것이다.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향유할 권리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데 익숙하지 못하며, 그것을 보는 시선 역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노인에게 폐쇄적이다(정재민, 2008, 5쪽)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장, 제2조(기본이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9.10.10). 그러나 우리사회 노인의 현재 모습이 노인복지법이 명시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노인문제는 단순히 ‘나이 듦’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이 되어 ‘살아가는’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노인이 되어 누구와 함께 사는가, 어디에서 사는가, 경제적인 뒷받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정규교육을 받았는가, 받았다면 교육수준은 어떠한가 등에 따라 노인들의 주된 관심사나 삶의 방식,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영주・정재민, 2006, 20쪽).

이런 관점에서 노인의 삶의 방식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노인 미디어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인 미디어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며 자아를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들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을 이끄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미디어교육은 소수자들의 새로운 주체화를 위한 다양한 접속과 생성을 주장하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로 설명되는 측면이 많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소수성과 소수자에 대해 강조하며 오늘날이 이미 소수자의 시대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이진경, 2002b, 369쪽). 노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자신들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현실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써 '되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되기'를 통해 획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 차이의 생성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천방향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야기하는 '소수자'와 '되기'가 지닌 의미를 탐색해보고, 이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과 연결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이 지닌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특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소수자계층 중 하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되기', 그 중에서도 '소수자-되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유에 기반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해 논의해봄으로써 노인들의 미디어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미디어교육의 방향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들뢰즈 · 가타리의 '소수자-되기'와 노인 미디어교육

1) 들뢰즈 · 가타리의 소수자 개념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소수자와 다수자의 구분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소수자가 다수자에 비해 수가 적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은 소수자는 반드시 '소수자-되기(devenir)'이지만, 다수자는 반드시 '다수자-이기(être)'라는 점이다. '소수자-되기'는 생성하는 소수자를 의미하며, 이때의 소수자는 'becoming'하는,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소수자이자 생성하는 배치이다. 따라서 소수자는 고착화된 집단일 수 없고, 개인일 수도 없다. 소수자들은 연속적 변이를 통해 '소수자-되기'로서 존재가 가능해진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규정하고 고착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일반성/특수성의 구조를 강화하는 반

면에, 소수자는 보편성[1)]/특이성의 구조를 통해 다양성을 지향한다(이정우, 2008, 226쪽). 소수자는 생성을 통해 다수자들의 동일성을 넘어서고, 되기를 통해 능동적인 생성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존재인 것이다.

소수자-되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소수자운동은 전통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혁명의 관점에서 벗어나 분자혁명, 욕망과 혁명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권력을 통한 사회변화는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환상에서 사회관계를 일시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긴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고 그에 대한 억압과 제약을 어떻게 풀어가며 사회관계를 변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소수자운동은 타자를 파괴하고 대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인식, 일상생활처럼 다양한 미시적 관계들을 변형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고 다수자적인 시선을 교정함으로써 다수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수종, 2008, 233-234쪽).

따라서 들뢰즈와 가타리에게는 변화의 동기가 되는 욕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의 기관 자체보다 다양하게 변용 가능한, 새로운 기관을 생성하는 '무한한 변용양태들인 기계들'이 중요하고, 자본주의에서 욕망하는 기계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기계는 신체의 변용태인 소산물을 의미하며, 기계를 무한히 생성하는 힘은 기관 없는 신체로부터 나오게 된다. 때문에 기관 없는 신체를 기계들을 무한하게 생산하는 추상기계라고 말한다(신승철, 2005, 155-156쪽). 여기서 기관 없는 신체란 문명화된 몸 안에 존재하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또 하나의 신체이다. 문명화된 몸은 이성의 지배 아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루며 기관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이와는 상반된 원초적 신체를 기관 없는 신체라 부르는 것이다(진중권, 2004, 241-244쪽). 때문에 기관 없는 신체는 고정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신체로서 다양한 잠재적 역량을 갖는다.

또한 기계란 생성을 위한 분절과 구성의 방식으로써 존재하는데, 기관 없는 신체에 장착된 욕망하는 기계는 연속적인 욕망의 흐름을 절단해내고 채취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유기체주의와 기계주의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을 거부하면서, 자유로운 욕망의 흐름을 포획하는 사회기계, 기술기계가 아닌 차이를 생성하는 예술기계, 창조기계로써 욕망하는 기계를 재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신승철, 2005, 157쪽). 즉 욕망을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기계로써의 작동을 멈추고 동일성을 벗어나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욕망하는 기계로써 기관 없는 신체를 다시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 없는 신체 안에 다양한 욕망을 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람직한 욕망을 창

1) 보편성이란 등질성과 반대되는 것을 뜻한다. '되기'를 가로막는 절대 실선이 존재하지 않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다양체들의 생성이 가능한, 점선들만 존재하는 지평으로서의 보편성인 것이다(이정우, 2008, 227쪽).

출하기 위한 신체와 신체, 신체와 욕망 간의 결합 관계가 중요해진다. 욕망은 예속에 의해 다양성을 박탈당한다. 신체와 신체의 만남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하나의 신체가 외부의 신체에 능동적인 작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체는 사회유기체의 일정한 주체로 규정되고, 소통과 변용, 생성하는 능력은 예속된 노동능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계급으로 환원된다(신승철, 2005, 162-163쪽). 가타리는 이처럼 사회의 제도들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주체성의 가능성, 새로운 조직방식을 찾아낸다. 욕망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을 강조하며 '되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윤수종, 2007, 191쪽). 즉 '되기'의 실천을 통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자신을 욕망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잠재된 역량의 발현이 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2) 소수자의 '되기' 실천

국가는 전체를 표방하며 사회를 유기체적인 필연적 관계로 구성해내면서도 차별에 대한 극복의 문제에 한해서는 도외시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민주주의 사회의 실질적 지표로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동성애자, 외국인노동자, 실업자, 노숙자 등에 대한 사회적 소외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유기체적으로 전체와 부분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사회는 찾기 어렵고, 부분을 배제하거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부분과 부분에 내재하고 있는 역량에 따라 소통하고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민주주의의 역량에 기초한 기관들의 감성적 실천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변용태를 끊임없이 생성함으로써 필연적 연관이나 사회적인 기능으로 분할된 기관들을 넘어서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신승철, 2005, 150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소외된 계층, 소수자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주체되기를 통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 안에서는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명명된 '일차원적 인간'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노동자, 여성, 학생이 공장과 가족과 학교를 넘어서 사회변혁과 새로운 관계형성과 지성의 공유를 요구하며 더 이상 특정한 정체성으로 규정되길 거부하는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포획장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용가능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신승철, 2005, 165쪽). 이들은 '되기'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동일성의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성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대상이 됨으로써 배제되고 억압되는 소외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인간을 구속하는 세 개의 지층을 유기체, 의미생성, 주체화라

고 설명한다. 유기체화·조직화는 신체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의미화·기표화는 사회라는 지배적인 현실에 의해 무의식적 차원에서 행해지며, 주체화는 개인적, 의식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존재는 유기체화, 의미화, 주체화의 지층 위에 고착되어 있고, 그러한 질서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배적인 질서 이면에는 포획되지 않은 잠재성이 흐르고 있으며, 존재는 섬세한 해체의 작업을 통해 탈영토화로 나아감으로써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한다. 유기체를 신체로부터 떼어내어 몸을 기관 없는 신체로 만들고, 무의식을 의미생성과 해석에서 떼어내어 진정한 생산으로 변화시키며, 의식을 주체에서 떼어내어 현실 속에 고정되지 않는 탐구 수단으로써 작동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기체화, 기표화, 주체화된 자신으로부터 탈주하는 것, 기관 없는 신체의 작동을 통해 잠들어 있는 신체의 능력을 깨우는 것이 바로 '되기'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pp.306-307; 김비아, 2007, 40쪽).

이처럼 들뢰즈와 가타리는 새로운 주체, 생성하는 주체를 형성하고자 했고, 그 방법으로써 '되기'를 말한다. 그들은 프로이트적 주체에서 나타나는 몰적(mole)이고 유기체적 특성을 지닌 고정된 주체를 거부하고, 동일성에 종속되지 않은 분자적(moléculaire) 흐름으로서의 주체를 받아들인다. 다수의 조직 양상과 유기체화를 지향하는 몰적 배치 방식과 소수의 조직 양상과 다양한 흐름을 인지하는 기관 없는 신체가 지향하는 분자적 배치 방식을 구분하고, 새로운 생성의 방식으로서 분자적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몰적 통합성과 정체성에 기반하거나 형태와 기관, 기능에 의해 한정되고 주체로 규정된 유기체에서 벗어나, 동일성과 고정성을 가로지르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생성을 야기하는 분자적 주체의 형성인 '되기'를 주장한다(연효숙, 2006, 92-94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조와 생성의 흐름으로부터 멀어져 체계화되고 고착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노력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기(=생성)는 결코 관계 상호간의 대응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사성도, 모방도, 더욱이 동일화도 아니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p.452)." 물론 '되기'는 나와는 다른, 나의 외부에 있는 것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신의 내부성을 지키고 머문다는 것은 동일성을 지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설고 새로운 세계와의 접속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역능들을 발현할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되기'는 결코 단순한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되기'는 접속과 교류를 통해 대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생성으로서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김비아, 2007, 41-42쪽). 고정되지 않은 대상들이 갖는 변화무쌍한 관계에 의해 대상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차이 역시 끊임없이 달라진다. '되기'를 통한 실제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형을 인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층으로부터 탈주하여 타자와의 접속과 교류를 통해 차이를 생성해내는 것이 사회적 질서와 관계에 의해 규정된 주체가 아닌 진정한 주체화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바로 '되기'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되기'의 과정에는 단계가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되기'의 여러 절편들 사이에 일종의 순서나 외관상의 진보를 설정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여자-되기'와 '아이-되기'가 있고, 다음으로 '동물-되기', '식물-되기', '광물-되기'가 있으며, 끝으로 온갖 종류의 '분자-되기', '입자-되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p.516). 그러나 인간에서 동물로, 다시 분자들로, 그 다음에는 입자들로, 끝내는 지각 불가능한 것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변형에 일종의 논리적 질서가 있다고 확신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다양체는 공생적이며 끝없이 변형을 생성하기 때문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pp.474-475). 따라서 '되기'를 단계나 속성을 따져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인간을 구속하는 지층들 가운데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탈주를 시도하는가를 통해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해진다.

'여성-되기'와 '소수자-되기'는 정치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되기'로서 기표화, 혹은 기표가 투사된 주체로부터의 탈주로 분류할 수 있다. '아이-되기'는 유기체화, 기표화로부터의 탈주이며, '동물-되기'는 유기체화로부터의 탈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좌표가 설정되어 있는 '되기'들이며, 이렇듯 '타자-되기'를 시도함으로써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되기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분자-되기', '음악-되기', '지각 불가능한 것-되기', '세상 모든 사람-되기', '이것임-되기' 등은 다른 흐름의 '되기'이다. 즉 주체적인 '되기'들이 충분히 선행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되기'들로서 주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주체적인 '되기'인 것이다. '분자-되기'는 주체화로부터의 탈주를 의미하며, '되기'의 극한인 '지각 불가능한 것-되기'로 나아가고, 극한에 다다르면 인간은 '세상 모든 사람-되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김비아, 2007, 56쪽). '소수자-되기'를 통해 분자적 역량을 획득하고 보편적 틀과 주체로부터 벗어난 개인들은 '분자-되기'로 나아가며 새로운 생성을 창조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수자-되기'는 소수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소수자가 되는 것이고, 소수자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여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자의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거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되기'가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이진경, 2002a, 92쪽). '소수자-되기'는 특정한 것으로 고정되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적이고 표준적인 것을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고 증식시키며 복수화하여 실질적인 다양성을 넓히는 방법이다(Guattari, 1977/1998, pp.195-228). 따라서 소수자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은 불가능하며, 소수자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소수자 교육이라기보다는 '소수자-되기'로써, 소수자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가 지닌 특성을 실질적으로 수용

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윤수종, 2008, 240쪽). 즉 욕망을 기반으로 하여 특이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인 '소수자-되기'를 통해 소수자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경험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해내고 소통의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없이 살 수 없는 현실에서 미디어의 경직된 배치를 소수자의 코드로 재배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유의미하다. 미디어는 지배적 현실과 지배적 의미작용을 형성하고 부과하면서 권력을 생산하고 스스로 권력으로 작용하는 근본 도구이다. 그러나 현실의 질서가 운명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미디어는 중요한 해방과 자유의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Guattari, 1977/1998, pp.247-248). 소수자성의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매체지대와 매체이론 내에 소수적 이질성과 소수 분파적 코드를 심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수화 모형에 상반되는 소수화 과정을 매체와 이론의 공간에 끊임없이 주입하고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성의 증가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483쪽). 미디어 공간에 소수자의 이미지, 소수자의 언어, 소수자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소수자의 세계를 실현하는 일은 문화적, 민주적으로 진화한 사회를 구성하는 길이 될 수 있다(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503쪽). 다시 말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소외의 문제들에 대해 배제와 억압의 방식이 아닌 소수자 문화로 인식하고 '되기'의 방식으로, 특히 '소수자-되기'의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이해와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소수자로서의 노인의 정체성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에 속하며 삶의 주체라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단절과 관계망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노인은 높은 정치 참여율[2]을 보이면서도 자존감을 상실한 존재로서 사회적 소외와 문화적 배제의 대상으로 정리된다(정재민, 2008, 4쪽). 노인에 대해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중요한 점은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하는가이다. 통상적으로 노인은 연령상 65세 이상이며,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은정, 2007, 67쪽).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노인을 이질적인 집단에 속하는 존재로 구분한다. 즉, 노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노인은 법, 제도, 정책결정, 사회서비스에서 철저하게 객체화되며, 그들의 의식이나 욕망, 감정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2) 2003년 대선에서 60대 이상은 78.7%였으며 그중 남성은 85.6%를 나타냈다. 17대 총선에서는 60대 이상이 71.5%였고, 그중 남성은 80.7%를 차지하였다(정재민, 2008, 4쪽).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사물화이다. 노인들은 인간이라는 범주 밖에 위치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조차 일말의 양심도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Beauvoir, 1970/2002, pp.11-12).

반면, 노인에게 있어 '노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며, 이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의미한다. 자아 정체감의 형성은 타자와의 관계가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즉,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를 비롯해 그 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Bronfenbrenner, 1986; 김은정, 2007, 재인용, 68쪽). 결국 정체성이란 상징적 질서내의 이상적 특질에 관한 정체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이종영, 2001, 230쪽). 상징적 질서란 문화적 의미체계를 말하며 이상적 특질이란 그러한 의미체계에서 높은 가치평가를 받는 어떠한 위치를 말한다. 결국 정체성은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자아상과 다르지 않다(이지영, 2009, 1006쪽).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사회의 문화적 의미체계 안에서 노인은 낮은 가치평가를 받는 위치에 놓여있으며, 그에 따라 노인의 정체성도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소수자는 양이 아닌 질의 문제이자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권력관계의 문제이다.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의 경험에 노출된 주체가 바로 소수자이고, 따라서 소수자의 문제는 권력관계와 새로운 주체성, 분자화하는 운동의 문제로 나타난다. 한국사회는 개인들이 새롭게 자신을 인식하고, 표준적인 주체상을 거부하며, 자기 나름의 집합적 주체를 만들어가는 소수자 문화의 형성과정에 있다. 소수자 문화는 한국사회 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양한 주체되기는 소수자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권력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타자'인 동시에 이에 불복종하고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실천적 주체들이 소수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소수자 문화란 미리 그 범위가 획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주체의 발견 또는 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한다. 과거에는 제대로 인식되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주체의 자각이나 외부의 호명을 통해 소수자문화로 야기된다. 여성, 동성애자, 이주 노동자, 노인 등은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자로서 겪는 억압·차별의 실재 경험과 주체로서 지닌 저항·해방의식에 의해 소수자 문화의 형성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483-487쪽). 이처럼 사회의 고정된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각자 진정한 주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현실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에서도 여전히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미디어 영역에서 노인을 위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고, 노인관련 미디어 연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노인들의 삶에서 미디어가 것이다는 비중과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미디어에 반영되는 모습에 있어서도 노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대표적 이미지로 각인되어암구도 주체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다는 보호대상으로 고착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다른 사회구성원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김영주・런 현실 속에서6, 13쪽). 매스미디어가 제시다는 외계층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사회・문화적으로 외계층 이런 부정적 인식과 편견 등의 '의미체계'를 생산다는 주요 매개체이다. 그 결과 부정적 외계담론체적인 방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긍정적 자아를 부정하도록 강요한다. ・런 한국사회는 노인들을 '무가치한'런 '고지식한'런 '죽음을 앞둔'런 '가난하고 외로운 존재'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노인들 스스로가 이러한 부정적 노인의 이미지를 수용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 때문이다(이지영, 2009, 1001-1002쪽).

이처럼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정신적으로 우울함을 경험하며 무기력감을 느끼는 등 다양한 심신의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 및 친구들과의 사별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상실감도 그들의 정서적인 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묘사되고 인식됨으로써 삶의 기쁨이나 의미를 느끼기 어려운 소외계층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노인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과 성을 그린 영화의 제목 <죽어도 좋아>가 갖는 함축적 의미는 사회의 지배적 질서에서 배제된 소수자로서 차별과 억압을 강요당하는 노인들의 현재 실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

4) 노인의 미디어 이용 행태

2009년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19만3천명으로, 총 인구의10.7%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 이르면 노령화 지수가 100.7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9.10.5). 슈람(Schramm, 1969)은 노인인구의 증가가 미디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였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매스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노인들이 은퇴, 가족들과의 별거, 사회로부터의 소외 등을 극복하고 여생을 재구축하는데 미디어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인들의 매스미디어 이용은 노년층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해 4가지 특성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노인들의 신체적 노쇠로 인한 '감각적 퇴보(sensory deterioration)'가 나타나 노년 초기에는 인쇄매체를 선호하지만, 점차 신문이나 잡지 이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곧, 텔레비전은 시청각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돼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홍명신, 2003, 188-189쪽).

이처럼 노인들의 일상에서 텔레비전을 떼어놓고 이야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노인들의 일상에서 텔레비전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가활용의 수단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다. 노인들의 텔레비전에 대한 의존도나 선호도는 다른 매체보다 절대적이다. 텔레비전 이용이 일상에서 결핍된 정보와 오락, 사회적 연대감과 휴식에 대한 노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정재민・김영주, 2007, 195-196쪽). 대부분의 노인들이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감소함에 따른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매스미디어는 노인들에게 고독 감소, 교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 소비, 주변 환경과의 연결 등의 기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Rubin & Rubin, 1982). 그러나 노인이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가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이 노인들을 위한 미디어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쇼・오락 프로그램이며, 젊은 세대의 문화를 담아내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사용하며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미디어로부터 얻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노인과 관련한 연구나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김영주・정재민, 2006, 53-54쪽). 노인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거나 노인의 시청속도를 배려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DMB나 PMP, PVR, TV포털, IPTV 등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빠르게 우리사회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미디어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사용률은 낮다. 멀티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는 휴대전화 역시 노인들에게는 전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며,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로부터도 배제당하고 있다(김영주・정재민, 2006, 63-72쪽). 뉴미디어의 확산 과정에서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디지털 격차를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 접근 여부로만 보아서는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능력과 적절한 콘텐츠의 활용가능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새로운 미디어에만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해온 아날로그 미디어의 진화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것 외에, 테크놀로지가 작용하는 방식과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간파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러한 내용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적 의미로 확장되어 정의되고 있다(Tyner, 1998; 김영주・정재민, 2006, 72-73쪽, 재인용). 해그베르그(Hagberg, 2004, p.163; 김용순・최영훈, 2007, 170쪽, 재인용)가 지적하듯이 기술은 사회현상이다. 즉, 기술의 이용은 사회현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다. 기술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활용되고 개발된다는 점에서 노인들에게 뉴미디어의 기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이외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등 능동적 태도를 강화시키게 한다(손연기, 2000, 24쪽).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 미디어 능력함양은 결국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영역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갖. 해 것이다. 교육에서는 학습 능력함여금 자신의 현재 욕구해소와 미래의 다양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케이하요하다(Warschauer, 2003, pp.123-124)는 교육학적 견해나, 매스미디어는 사회재 에 대한 일차 정보원이 되며, 공유하는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공통의 '문화적 환경'을 제공한다(McQuail, 2000/2002, p.23)는 매스커뮤니케이션학의 견해 모두가 노인의 미디어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 미디어교육은 노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 대하여 힘을 갖도록(empowerment) 돕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그들이 이미 습득한 기술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자기만족이나 목적의식, 자아정체성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과 지역 및 전체사회 속에서 힘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서정훈, 2007). 노인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서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디어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간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규범을 익히며 사회화되고,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주체적인 존재로 타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노인을 배제하고 억압하며 차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자질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양한 차원의 미디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강진숙, 2005, 19쪽)이며, 노인 미디어교육 역시 노인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능동적인 미디어 활용을 통한 주체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 하겠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통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소수자-되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인 미디어교육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의 미디어교육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소수자-되기'를 위한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노인의 기대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현재 미디어교육을 받고 있거나, 미디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 6명(남성: 4명, 여성: 2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룹인터뷰를 택했으며, 인터뷰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녹취 기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특별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소속의 노인들로, 미디액트와 함께 실시하는 노인 미디어교육 학습자들로 구성하였다. <표 2>의 교육기간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한 기간을 말하며, 그 이전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녹취록 기술 부분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	연령대		성별	미디어교육기관	교육기간
		나이	평균			년
1	서OO	75	73.8	남	서울노인복지센터	1년
2	손OO	74		남	서울노인복지센터	2년
3	박OO	74		남	군포노인복지회관, 서울노인복지센터	2년
4	심OO	79		여	서울노인복지센터	8년
5	문OO	73		여	서울노인복지센터	3년
6	최OO	68		남	서울노인복지센터	3년

서울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의 2009년도 노인 미디어 심화교육은 1차년도인 2008년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 및 캠코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노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주1회 수업과 더불어 노인 스스로 수업내용을 복습・예습하는 자치활동 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서울노인복지센터, 2009.10.9).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수강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체험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미디어교육에 바라는 내용이나 방법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의 미디어능력 향상과 '소수자-되기'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4. 결과분석

1) 노인의 정체성 : 다수자인가, 소수자인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다수적이고 지배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주체성을 정립하는 '소수자-되기'의 방식은 중요하다.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에서 이 점은 더욱 의미를 지니며, 고정되지 않은 소수자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의 필요성 또한 강조된다. 이를 위해 우선 학습자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 이순재씨인가,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노인네가 좀 젊잖게 교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김자옥씨하고 그렇게 역할을 했잖아요. 물론, 뭐 노인네라도 남녀가 교재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혼자 사니까. 그런데 너무 역겨워. 몰라, 난 너무 지나치게 저렇게 교재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5)

> 그런데 그러한 드라마가 나오면 사람들이 모든 늙은이들이 다 그런 줄 알까봐 좀. 활기찬 것도 좋은데 젊잖지 못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참여자 4)

> 활기차지~ 노인들은. 활기가 넘치지. 왜 그런거 생각을 해. 내놔야지. 그러면 인제 젊잖은 사람도 '아 저렇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용기가 생긴단 이말이야. (참여자6)

미디어교육의 참여자들은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기준에 의해 자신들을 규정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었다. TV에 나타나는 노인들의 이성교재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잖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거나, 미디어에서 그려

지는 노인의 모습을 바탕으로 형성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자신에게 투영될까봐 염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미디어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성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남성 참여자들은 비교적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통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으며,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여성이 욕망에 대해 보다 억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과 관계형성 자체는 자유로운 욕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노인의 입장이 아닌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야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자의 관점에서 노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 지하철 타잖습니까? 나오기 전에 뚫고 들어가요. 노인들이 자리잡을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볼 적에 어떻게 보느냐, 나도 늙으면 저래 나는 저렇게 안해. 그러다보면 내 자신부터 보기가 민망해. 노인이면 좀 젊잖게 자식들 밑에 사람도 있는데. 가서 없으면은 서있어. 실제 타봤자 몇 분이야, 십분 이십분이야. 노인들이 십분 이십분 서가지고 뭐져? 안 뭐진다 이말이야. 조금 다리아파서 쉰다해가지고서 쉬면은 여러 사람 보기도 민폐고 사회도 그렇고. 나는 이것이 뭐가 좀 홍보를 하던지 고쳐야 되지 않냐. (참여자6)

> 오죽해야 그러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건강하시고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도 매너도 알고 다 인간이니까 남의 사정도 알텐데 오죽해야 그러겠어요.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4)

> 늙은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 그건 이 사회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 이상 안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2)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노인에 대한 자리양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노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과 젊은이들이 양보해주지 않는 말뿐인 경로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논쟁을 통해 노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은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다수자적 시각과 노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수자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회가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또 다른 지배적인 관념처럼 노인들이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 했고, 그런 식으로 고정된 시선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벗어나고자 했다.

여기서(복지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불쌍한 노인네들', '외로운 노인네들' 이것만 따져.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냐하면, 세 사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위주로 끌고 나가지 않냐. (참여자 6)

어쩔 수가 없어. 레벨이 차이가 있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격차 나는 건데 그러면 강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할거야? (참여자3)

그리고 가엾어 이쪽이 오히려. 기억자도 몰라도 이 사람들이 가엾으니까. 여기 우대해주는 게 당연한거야. 인간이니까. (참여자4)

소수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디어교육 학습자들이 스스로를 '불쌍'하거나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지닌 개방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소수자-되기'의 실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참여자들은 노인복지관 내에도 여러 계층의 노인들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다른 노인에 대해서는 가엽게 여기고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젊은이와 대비해서는 자신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체면이나 양심에 기대어 부끄러운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자신보다 부족하거나 가여운 노인은 보호하고 잘해줘야 한다는 다수자로서 사고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전히 자신과 다른 노인들을 구분 짓고, 타인에 대해서는 다수자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진정한 '소수자-되기'를 위해서는 극복이 필요하다.

2) 노인 미디어교육의 경험

노인 미디어교육 학습자들에 대한 FGI 분석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교육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만큼 '미디어'란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자가 생각하는 '미디어'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복지관에 와서 미디어라는 것에 대해 알았어요. 어려서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못하잖아요. 30대가 돼서 카메라를 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고, 내 이 어깨가 으쓱해 보여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미디어다. 미디어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죠. 좋은 것만 알았지 미디어를 모르는 거죠. (참여자 6)

미디어는 컴퓨터하고 사진하고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진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에서 현상도 하시고 그랬어요. 혼자 배낭여행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찍질 못했는데 요새 디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서 많이 찍고 있습니다. (참여자 4)

참여자들은 대체로 '미디어'를 컴퓨터와 사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

디어에 대한 개념이나 미디어교육 참여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컴퓨터와 사진촬영을 통한 활동과 관련짓는 경향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겠다며 현장의 모습을 촬영하고, 다른 노인을 불러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사진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인터뷰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즐기고 있었고, 카메라를 자기신체의 일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가장 문제는 한 팀이 6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조명 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조명은 그냥 안하더라도 마이크나 녹음 말이죠. 마이크라도 좀 집어주는 놈이 있어야 되고. 또 그야말로 카메라도 들고 하면서 하려니까. 사실 사람이 부족해요. 또 몸이 시원찮고. 그야말로 아마추어 입문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마이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찍는 거는 누가 혼자 찍는다고 해도. 그게 또 삼발이 놓고 뭘 하니까 외려 망가지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다 때려치우고. (참여자 3).

미디어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한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많은 흥미를 갖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캠코더를 활용한 촬영과 편집활동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영화제작처럼 일상생활의 미디어 활용을 넘어서는 미디어교육 활동의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단순히 기기의 조작능력 이외에도 필요로 되는 능력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협동작업의 과정을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노인의 특성과 인원부족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감도 영화제작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일년에 한두번 내 생일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할 때 잠깐 찍기는 하는데. 반응이 할아버지가 그런 거 하니까 참 좋다고 그러지. 해서 손자들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러면 좋다고,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러지. (참여자1)

> 작년에 계절의 변화하는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거,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거기다가 나래이션 좀 여코(넣고) 음악 좀 여코(넣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금년 3월달에 교통방송에 한번 방송을 해봤어요. (참여자 2)

반면,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면서 느낀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랑거리가 생겨서 좋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나이가 듦에 따라 발생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새로운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나 주제를 각자의 능력에 맞는 미디어로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미디어 제작 행위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이론적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학습과정과 서툰 기기조작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이나 여론형성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 미디어교육의 학습자들은 사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나누는데 있어 적극적이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미디어교육을 통해 습득한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에 주어지는 조건들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욕망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고정된 정체성과 전통적인 인식을 허물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미디어교육의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3) '소수자-되기'를 위한 노인 미디어교육

> 컴퓨터 좀 하다가보니까 맨날 남의 사진 갖다가 글을 써 봐도 저작권이니 하도 시끄러워서,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내 사진 올리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참여자 2)

>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면은 과거 1900년대 그때의 사진들 자꾸 인터넷에서 쓰잖아요. 하나의 기록매체로써 내가 생각하는 거고 주로. 하나의 작품이라기 보담도 나는 기록을 위주로 해요. 개인적인 기록도 있고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참여자3)

사회적 약자,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이 아닌, 주도적이고 행위지향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참여자들의 모습과 자부심어린 응답에서 진정한 주체성의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개인적인 주제를 넘어서 역사적 기록까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습자들의 폭넓은 미디어 활용방식 또한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하는 진정한 소수자로서의 주체에 가까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노인 미디어교육의 참여자들은 미디어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으며, 미디어교육의 학습 과정에서 타인을 만나고 소통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을 장점으로 꼽고 있어 미디어교육이 교류의 폭을 넓히고 보다 개방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매개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는 미디어교육은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습자들이 역량을 자유롭게 발현하도록 돕기에는 개선되고 보완돼야 할 점들이 있다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제가 좋아하는데 많이 참석을 못하니까 진도가 떨어지잖아요. 선생님 계획은 자기주장대로, 자기 임의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한 시간에 수업하는 걸 세 가지로 한다. 그게 불만스러운데, 불만스러운 걸 선생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안돼. 그러니까 무마시켜가지고 자기네 위주로 끌고나간다. 배려가 없지. 노인네들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고 선생은 선생위주로 끌고나간다고. 만약에 내가 선생이라면 의견을 따라줘야지. 투표를 해야지. 다수결로 하자 이거야. 그렇게 해도 안돼.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내색을 안하지. 30명이 3개월 되가지고 6개월 되가지고 30명이 15명이다. 줄었다 이거야 회원이. 그러면 (선생님을) 바꾸는 거걸랑 그런데 안 바꾼다 이거야. (참여자 6)

나 싫으면 그만이지. 뭐 그거가지고. 나는 뭐, 내 뜻에 안 맞으면 고만두면 그뿐이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돈을 내고 다니나 뭐. (참여자 3)

이처럼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경우 단순히 미디어기기를 어떻게 조작하는가에 대한 교육에 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카메라나 컴퓨터 활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배우고자 하는 열의나 욕구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적이 단순히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게 될 경우, 보다 난이도가 높은 활용법을 배우거나 영화제작처럼 자신의 표현력이 요구되는 교육 단계에서는 흥미를 잃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인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고정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변화에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만족스러운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대해 교사와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일방적인 정보수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교육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학습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교육의 목적은 노인이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노인들과 함께 나누며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 역시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미디어교육 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노인네들 그 왜냐하면 우리가 각 동아리별로다가 특히 우리는 탑골 문화사랑 봉사회라 해가지고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울러메고 일주일에 한번씩 종묘 이거 탐방하고.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책정 됐잖아요? 거기가서 그거 하고 인저, 여기 동국대학교 부속 중고등

학생들이 한달에 한번씩 한 2, 30명씩 와요. 걔들하고 같이 가서 또 그거 하고 하는데. 그걸 하고 또 한번씩 차로다가 나가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인제 우리 점심하고 간식을 뭐 이렇게 배정이 돼서 오는 그게 아주 미약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충분히 받아가지고 노인네들 그거 활동할 때 충분히 좀 배불리 줘라. (참여자 1)

저도 비슷한 얘기에요. 지원을 해주면은 같은 값이면은 잘 뭐가 잘 되는데 지원 한푼 없으니까 아주 힘들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써야되지, 내 차비 들여야지, 내 밥먹야지, 힘들어. 그래 얼마 걷어가지고 밥먹으니까 그거가지고 되지도 않지, 각자각자 맘은 틀리지.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면 한 팀에 뭐 20만원 30만원 있다 나간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있으니까 안 나올 사람도 나올 수 있고 힘도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개털이야. 아주 힘들어. 그뿐이야. (참여자 6)

미디어교육 학습자들은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는 높지만, 실습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미디어 이용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소외계층의 한계에서 벗어나 가능성의 존재로서 인정받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기존 미디어교육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 이후에 이루어지는 노인들의 제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맺는 말

지금까지 미디어교육을 받는 노인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측면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안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유를 기반으로 노인들을 소수자로서 파악하고 '여성-되기'의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 미디어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디어교육이 노인들이 소외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여성-되기'의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 인터뷰 참여자들이 미디어교육을 접하게 된 계기는 주로 취미활동이나 건강유지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디어교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TV나 라디오, 신문을 이용하는 비중보다 컴퓨터나 카메라를 활용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미디어교육의 학습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소통하

면서 자신감을 얻었지만, 노인이기에 학습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억력, 이해력 등의 인지적 문제와 체력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비교적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뚜렷했으며,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다만, 미디어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상을 향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나타나거나 주변에서 마주치는 노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전히 전통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약자로서 동정이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으로부터는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 노인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접하게 되면 거부감을 나타냈다. 스스로는 자신감이 있고 개방적 사고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노인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입장과는 다른 다수자의 입장에서 억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미디어교육이 노인들의 분화된 시각을 일치시키고, 고정된 정체성을 허물면서 욕망을 기반으로 하여 특이성을 강화하는 '소수자-되기'의 방식으로 학습자들을 이끌어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의 노인 미디어교육은 노인들을 소외된 약자로서 인지하고 교수자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노인들의 욕구와 필요가 단순한 기계의 사 있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인들의 미디어 활용있었다의 수준이 향상되고 노인들이 까지의 노진정한 욕망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안에서부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소수자-되기'가 필요할 것이다. 자유램의 구성에 있어서도 미디어의 작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 주체성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에게 미디어는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노인들이 직접 제작한 미디어의 내용들은 늙어감에 대한 정서, 역사(가족사와 현대사)에 대한 기억과 증언, 세대 간 문화적 차이와 소통, 지역과 사회문제, 노인(사회적 일) 등으로 유목화 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교육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함과 더불어 그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오정훈, 2008, 57쪽).

2002년에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인연을 맺고 2005년부터 '영상아카데미'를 통해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선 조경자씨는 올해 80세의 할머니이자, 영화계에 무섭게 떠오르는 신인감독이다. 2005년에 저출산 문제를 다룬 '산부인과'를, 그 이듬해에 어릴 적 살던 한옥 집에서 오빠와 숨바꼭질하던 기억을 담은 '한옥예찬'을 촬영한데 이어, 2008년에는 '꼬마사자님과 키다리 조수', '책 동네 사람 동네' 등 두 편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난 나를 잘 안다. 이 딸 삼형제를 낳은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조경자, 2008, 86쪽)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는, 소수자로서의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주체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말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강진숙 (2005). 미디어 능력의 구성범주에 대한 연구: 독일 공영방송의 미디어 능력 개발 사례에 대한 세부적 특성화 및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5-35.

김용순・최영훈 (2007). 노인정보화와 노인복지간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노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권 2호, 167-193.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9. 10. 10). 노인복지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39&PROM_NO=09386&PROM_DT=20090130&HanChk=Y

김비아 (2007). 『들뢰즈・가타리의 ‘되기’의 정치학이 지닌 교육적 함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정재민 (2006). 『노인과 미디어: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과 복지』. 한국언론재단.

김은정 (2007). 노년기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 노인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2007전기사학대회, 『한국사회학회 50년정리와 전망 발표논문집』, 67-83.

문혜성 (2004). 『미디어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서정훈 (2007). 노인 미디어교육의 쟁점과 과제: 수용자 중심에서 시작하는 교육으로. 『ACT』, 44호. http://www.mediact.org/web/media/act.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996&subTitle=%B9%CC%B5%F0%BE%EE%B1%B3%C0%B0&keyno=2003

서울노인복지센터 (2009. 10. 9). 미디어교육, http://www.seoulnoin.or.kr/

손연기 (2000).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노인복지연구』, 8-29.

송형국 (2002.12. 5). 『새 영화 ‘죽어도 좋아’』.경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32&aid=0000002036

신승철 (2005). 들뢰즈・가타리의 욕망론과 신체론에 대한 고찰 — 『천개의 고원』

제6장 '기관 없는 신체를 만드는 법'을 중심으로-.『철학과사상문화』, 1권, 133-173.

연효숙 (2006).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주의와 욕망론 그리고 여성적 주체.『한국여성철학』, 6권, 77-102.

오정훈 (2008). 노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전략.『서울노인복지센터자료집』, 2008-17.

윤수종 (2007). 분자혁명에서 생태철학으로-펠릭스 가타리의 사상 추이.『진보평론』, 31호, 182-206.

윤수종 (2008). 소수자와 교육.『진보평론』, 227-242.

이정우 (2008).『천하나의 고원-소수자의 윤리학을 위하여』. 파주: 돌베게.

이종영 (2001).『성적지배와 그 양식들』. 서울: 새물결.

이지영 (2009). 노년담론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대응에 관찬 질적 연구: 자아상과 노인상의 차이를 중심으로.『한국노년학』, Vol. 28, No.3, 1001-1024.

이진경 (2002a).『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이진경 (2002b).『철학의 외부』. 서울: 그린비.

정재민・김영주 (2007). 노인층의 텔레비전 이용행태와 충족에 관한 연구.『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172-200.

정재민 (2008). 노인, 미디어로 소통하다.『서울노인복지센터자료집』, 2008-17.

진중권 (2004).『미학오디세이3』. 서울: 휴머니스트.

통계청 (2009. 10. 5). 2009 고령자통계, http://www.kostat.go.kr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파주: 한울아카데미.

홍명신 (2003). 노인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초기 노인을 중심으로.『한국노년학』, 23권 2호, 187-203.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김재인 역 (2001).『천 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Denis McQuail (2000). *Mass communication theory.* 양찬승・강미은・도준호 공역(2002). 서울: 나남출판.

Guattari (1977). *La revolution moleculaire, Recherches.* 윤수종 역 (1998),『분자혁명』, 서울: 푸른숲.

Rubin, A. M. & Rubin (1982). Older person's TV viewing patterns and motivation, *Communication Research, 9*(2), 287-312.

Schramm, W. (1969). Aging and mass communication, in Riley M. W., Riley & M. E. Jonson Eds., *Aging and Society, 2*, 352-376. NY: Russell Sage Foundation.

Simone de Beauvoir(1970). *La Vieillesse.* 홍상희· 박혜영 역(2002).『노년: 나이듦의 의미와 위대함』, 서울: 책세상.

Warschauer, M. (2003). *Technology and social inclution: rethinking the digital divide.* Cambridge, Ma: The MIT Press.